

'농부시장 마르쉐'와 농촌융복합상품 선배

농진청, 전국 8개 시군 29개 농업경영체의 농촌융복합상품 소개

농촌진흥청은 '농부시장 마르쉐'와 협업 지역의 우수 농촌융복합상품을 도시 소비자에게 알리고 판매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전국 8개 시군 29개 농업경영체가 생산한 제철 농산물, 농산가공품, 발효식품을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선보인다. 이번 달 27일에는 경남 밀양에 있는 4개의 농업경영체가 생산한 딸기크림 찹쌀떡, 딸기 카스텔라, 딸기 주스, 사과 주스 등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

플라자에서 판매한다. 다음 달 11일에는 서울 양천구 목동 오목공원에서 녹각영지버섯, 착즙 배즙, 단호박 잼, 식용 꽃 활용 농축 음료, 유자 드레싱, 작두콩 차, 사과 버터 등을 소개한다. 경기 남양주, 경남 거제·거창에 있는 11개 농업경영체가 참여하며, 거창 군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특산물 사과로 만든 젤리, 차, 요거트 바 등을 홍보한다. 5월 17일에는 강원 정선, 전북 완주

에 있는 7개의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 협동조합이 생산한 산더덕청, 곤드레 맛장, 고구마 가공식품, 과일 젤라토, 수제 식초 등을 서울 중구 국립극장 광장에서 만날 수 있다. 5월 24일에는 서울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전북 김제, 경남 고성에 있는 7개 농업경영체가 생산한 미숫가루, 장아찌, 볶음 땅콩, 막걸리, 전통주, 꽃·허브로 만든 농축 음료(코디얼) 등을 소개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29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농부시장 마르쉐 안내, 상품 전시 및 판매 방법 등을 소개했다. 행사가 끝난 6월에는 농업경영체 성과를 분석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홍보·판매 창구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2012년 문을 연 '농부시장 마르쉐'는 생산자, 소비자, 자원활동가, 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양방향 소통형 시장을 지향, 비영리민간단체이다. 물품 판매 외에도 주제별 전시 및 이벤트, 문화 공연을 기획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오상근 기자

'농업과학기술로 현장 문제 해결 인정'

농진청, 과학의 날 기념 유공 포상 6건 수상

농촌진흥청은 지난 21일 열린 제58회 과학의 날 기념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과학기술포장 1점, 대통령 표창 1점, 장관 표창 4점 등 총 6점을 수상했다. 과학의 날 기념 유공 포상은 과학기술인의 자긍심과 명예심을 북돋우고, 사기를 진작시켜 국가과학기술 혁신에 기여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자를 발굴·포상하는 제도이다. 올해 농촌진흥청 수상자 6명은 농업 분야 과학기술개발을 통해 농업 현장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과학기술포장은 국립축산과학원 박병호 과장이 수상했다. 국가 단위 한우·젓소·돼지의 유전능력 평가 체계를 과학적으로 고도화해 우수 씨가축을 안정적으로 선발·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유전체 정보와 전국 단위 개량 데이터를 연계한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가축 개량의 객관성과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이런 성과는 우리나라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종축 공급 기반 안정화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로 높이 평가됐다. 대통령 표창은 국립농업과학원 박동석 연구관이 수상했다. 국가



김영병 중 하나인 과수화상병이 대규모로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진단 기술을 개발, 농가 생산 안정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은 △국립식량과학원 안익근 연구관(벼 품종 개발 및 종자 보급 구축을 통한 쌀 수급 안정)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영섭 연구사(국산 특용작물의 신규 기능성 발굴 및 원료 제조 기술 개발) △국립축산과학원 신문철 연구사(축산시험 연구 사업 운영 및 효율적인 사업 관리) △국립축산과학원 천주란 연구사(반려동물 건강 개선을 위한 기능성 사료 개발 및 동물 대체 실험법 개발)가 각각 수상했다. 농촌진흥청 김병식 연구정책국장은 "이번 수상은 농촌진흥청의 농업과학기술이 농업 현장과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널리 인정받은 값진 성과이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력공사 전복, 산불지연제 활용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

한국전력 전복본부는 최근 급증하는 대형 산불로부터 주요 전력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산불지연제를 활용한 합동 모의훈련을 지난 21일 남원시 소재 변전소에서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산림청과 남원소방서가 함께한 합동 훈련으로, 실제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해 변전소 인근 산림에 산불지연제를 살포하고 확산을 저지하는 대응 절차를 점검 점검했다. 훈련 중에는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응 체계와 유관기관 간 협업 매뉴얼도 함께 점검했다. 산불지연제는 식생의 연소를 지연시켜 화염의 확산 속도를 줄이는 특수 물질로, 전력설비 주변에 미리 살포해 산불의 접근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이를 통해 소방 인력의 대응 시간을 확보하고, 변전소 등 주요 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 전복본부 연원섭 본부장은 "이번 훈련을 통하여 산불 대응 자체 매뉴얼을 면밀히 점검하고, 소방서 및 산림청 간에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실제 산불이 발생했을 때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복본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훈련과 예방활동을 통해 전력설비 보호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중소기업 최고경영자과정(KBIZ AMP)' 제19기 입학식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인 특화 CEO과정으로 '존경받는 CEO'로 성장이 목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1일 중소기업 최고경영자과정인 'KBIZ AMP (Advanced Management Program of SMEs)' 제19기 입학식 행사를 개최했다. KBIZ AMP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경영역량 강화와 비즈니스 네트워크(business Network)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8년 개설한 중소기업 CEO 특화과정으로, '창의적인 사람과 조직을 키우는 존경받는 리더 양성'이라는 교육목표로 지난 2024년까지



18기수, 1,063명의 동문을 배출했다. 이날 입학식에는 조진형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직무대행은 환영사를 통해 "KBIZ AMP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운영하는 최고경영자과정으로, 수준 높은 강의와 평생을 함께하는 네트워크가 장점"이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동문회장(쥬자연과환경 대표이사)을 비롯해 19기 신입원우와 선배동문 등 6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동아대학교 오동운 교수의 "중소기업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이 진행됐다. 조진형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직무대행은 환영사를 통해 "KBIZ AMP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운영하는 최고경영자과정으로, 수준 높은 강의와 평생을 함께하는 네트워크가 장점"이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김제시 광활면 다자녀가정 'JB희망의 공부방 제196호' 오픈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지난 21일 김제시 광활면 다자녀 가정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196호' 오픈식을 실시했다. 이번 지원 가정은 조부, 부모 9남매가 24평 좁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다자녀 가정으로 김제시의 지역사회 관심으로 2층 규모의 새로운 모듈러 주택을 지원 받았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령기 아동들을 위한 공부방 조성에 어려움이 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북은행에서는 아동들을 위한 책상, 의자 등을 지원해 공부방을 마련하고,



정착했다. 전북은행에서는 아동들을 위한 책상, 의자 등을 지원해 공부방을 마련하고,

참대, 옷장, 블라인드 등을 설치해 9남매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중학생인 첫째는 "예전에는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책상과 의자가 없어 불편했는데, 동생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부방이 생겨 기쁘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오픈식에는 김제시 정성주 시장, 전북은행 전상익 부행장, 김병식 김제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농협, 문학지점 완산구 새 사무소로 이전

전주농협은 최근 문학지점을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373으로 사무소를 이전하고 이를 기념하는 개점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이전은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효율적인 금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결정으로,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점식에는 임인규 조합장을 비롯해 농협은행 전주시지부 하양진 지부장, 임·직원 등이 참석하여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새롭게 이전한 문학지점은 금융 시스템과 고객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것으로 기대된다. 개점식에는 임인규 조합장을 비롯해 농협은행 전주시지부 하양진 지부장, 임·직원 등이 참석하여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새롭게 이전한 문학지점은 금융 시스템과 고객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전기안전공사, '지구의 날' 자원순환실천 챌린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1일 전북 완주군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에서 '지구의 날' 기념 자원순환실천 챌린지를 진행했다. 자원순환 확산과 환경보호 실천을 위해 기획된 이번 챌린지는 '폐소형가전과 플라스틱 장난감 전담식'으로 열렸다. 2주 동안 전기안전공사 본사 직원들의 기부품을 모아 전주새활용센터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챌린지를 통해 모은 물품은 사무용 프린터기를 포함한 다양한 폐소형가전 171.2kg에 달한다. 포괄적 환경영향 평가 기준을 적용하면 약 446kg의 이산화탄소 배출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기부된 폐소형가전은 전문업체를 통해 자원으로 재생될 예정이다. 천연자원의 채굴을 줄이고 폐기물 소각·매립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경감



시키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플라스틱 장난감은 전주새활용센터의 기획 전시 '플라스틱 정글 탐험대-장난감의 역습'과 연계 체험프로그램에 활용된다. 이를 통해 일상 속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관달객·이용객에게 자연스럽게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임직원과 전주시새활용센터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챌린지의 성과를 공유하고, 민간협력을 통한 자원순환 실천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오상근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